

호날두 2골 원맨쇼 ... "나, 새가슴 아냐"

포르투갈, 네덜란드 꺾고 죽음의 조 탈출

독일은 덴마크 제압 3전 3승 '퍼펙트 8강'

■유로 2012 B조 순위

순위	승	무	패	승점	골득실	8강
① 독일	3	0	0	9	3	진출
② 포르투갈	2	0	1	6	1	진출
③ 덴마크	1	0	2	3	-1	탈락
④ 네덜란드	0	0	3	0	-3	탈락



'죽음의 B조'

FIFA 랭킹까지 등장하는 복잡한 경주의 수를 따졌지만 8강 진출 팀은 의외로 쉽게 가려졌다.

독일 3승, 포르투갈 2승1패, 덴마크 1승2패, 네덜란드 3패. 2년 전 월드컵 준우승국 네덜란드는 '빅3' 우승후보로 주목 받았지만 3전 3패로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다.

포르투갈은 18일 오전(한국시간) 우크라이나 메탈리스트 경기장에서 열린 유로 2012 B조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호날두의 전후반 멀티골로 네덜란드에 2-1 역전승을 거두고 '죽음의 조'에서 살아 남았다.

2골 차 이상으로 이겨야 8강 진출을 기대할 수 있었던 네덜란드는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판 페르시와 분데스리가 득점왕 훈텔라르를 투입하며 출격시키며 초반부터 공세를 폈다.

모처럼 조직력을 회복한 네덜란드는 전반 11분 선취골을 쉽게 뽑아냈다. 로빈이 수비수들을 헤치고 중앙으로 패스해 준 공을 판 데르파르트가 왼발로 절묘하게 잡아 차 골대 좌측에 꽂아 넣었다.

네덜란드의 극적인 8강 진출 길이 열리는 듯했으나 이게 전부였다.

침묵하던 에이스 호날두가 살아나면서 포르투갈의 플레이도 살아나기 시작했다. 전반 15분 호날두의 중거리슛이 네덜란드의 왼쪽 골대를 강타했다. 반격의 시작이었다. 호날두의 플레이는 빠르고 날카롭고 강했다. 중형무진 그라운드를 휘저으며 나나와 함께 네덜란드 수비진을 유린했다.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다.

전반 27분 동점골이 터졌다. 수비수 페레이라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호날두에 스루 패스를 연결했고 호날두는 오른발로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자신감을 찾은 호날두는 특기인 무회전력과 강력한 슈팅으로 상대 문전을 위협해 나갔다. 호날두는 결국 후반 29분 나니의 감각적인 팽볼 패스를 중앙으로 한 번 짚은 후 침착하게 오른발 결승골로 마무리해 승리에 쾌거를 박았다. 후반 45분엔 중거리슈팅이 또다시 골대를 때리고 나와 어렵게 헤트트릭의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네덜란드는 볼 점유율에서 58% 대 42%로 앞섰으나 슈팅수에서 13(유효슈팅 5) 대 22(8)로 밀리는 등 경기 운영에서 완패했다. 포르투갈은 이날 승리로 역대 전적에서 7승3무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며 네덜란드의 천적임을 재확인했다.

독일은 같은 시간에 우크라이나 리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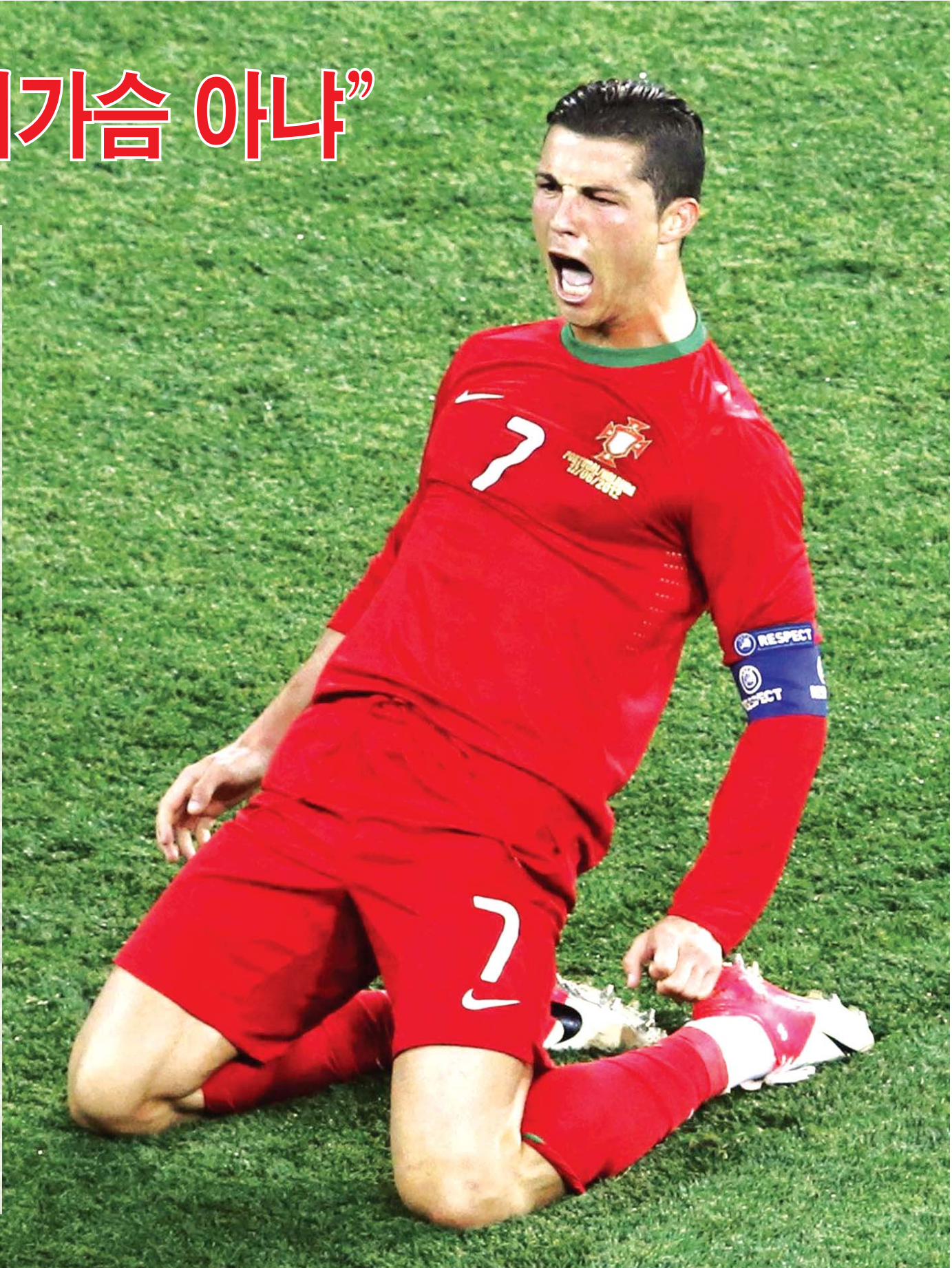
프 경기장에서 벌어진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덴마크를 2대 1로 따돌렸다. 3전 전승 승점 9점, B조 1위로 8강에 진출.

비기기만 해도 8강에 오르는 독일은 침착한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줬다. 선취골도 독일이 뽑았다. 전반 19분 밀러가 오른쪽에서 밀어준 공을 고메즈가 흘러보냈고 왼쪽에서 쇠도하던 포돌스키가 오른발로 때려 덴마크 골문을 무너트렸다. 포돌스키는 자신의 A매치 100경기 출전을 골로 자축했다.

덴마크는 5분 뒤 곧바로 따라붙었다. 전반 24분 오른쪽 코너에서 길게 날아간 크로스가 벤트너에게 배달되었고 벤트너의 헤딩패스를 받은 크론-델리가 다시 헤딩슛으로 동점골을 터트렸다. 약속된 플레이였다. 그러나 덴마크엔 승리에 대한 의지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의 경기 결과에 기대시종일관 무기력한 경기를 펼치다 후반 35분 독일 수비수 벤더의 공격에 가담해 의한 결승골에 허무하게 무너졌다. 볼 점유율 독일 57% 대 덴마크 43%. 슈팅 수 12(6) 대 10(6).

B조 1위로 8강에 오른 독일은 오는 23일 오전 3시45분 A조에서 2위로 올라온 그리스와 4강 진출을 다투고 같은 시간에 포르투갈은 A조 1위인 체코와 맞붙는다.

/유재관기자 jkyou@kwangju.co.kr



웹 심슨 US오픈 우승 ... 생애 첫 메이저 왕관

한국 남자배구 20년 만에 강호 이탈리아 꺾었다

웹 심슨(27·미국)이 제112회 US오픈 골프대회에서 생애 처음으로 메이저 왕관을 차지했다. 심슨은 18일(한국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올림픽 클럽 레이크 코스(파 70·7천17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묶어 2언더파 68타를 쳤다.

4라운드 함께 1오버파 281타를 적어낸 심슨은 짐 퓨릭(미국), 그레이 맥도웰(북아일랜드) 등 강호들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는 기쁨을 누렸다. 맥도웰과 마이클 톰슨(미국)은 2오버파 282타를 쳐 공동 2위, 퓨릭은 3오버파 283타로 공동 4위에 올랐다.

최경주(42·SK텔레콤)는 1타를 줄여 공동 15위(6오버파 286타)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타이거 우즈(미국)는 3타를 잃고 공동 21위(7오버파 287타)로 내려앉았다. /연일뉴스



2012 월드컵, 3-2 역전승

22일부터 광주서 열릴 대결

한국 남자배구가 20년 만에 강호 이탈리아를 물리쳤다.

세계랭킹 20위인 남자배구팀은 18일(한국시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2012 월드컵 2주차 C조 3차전에서 랭킹 3위인 이탈리아에 3-2(22-25 24-26 26-24 25-15 15-11)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5연패 끝에 첫 승을 거둔 한국은 승점 5를 기록했다.

한국은 1992년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를 이긴 이후 무려 22연패를 당했다.

이날 한국은 2세트까지 이탈리아의 높은 배드민턴 공격의 실마리를 제대로 풀지

못했지만 3세트부터 신예들의 활약에 힘입어 전세를 뒤집었다.

3세트에 리베로 이강주(드림시스)를 페프트로 투입해 리시브를 강화한 한국은 수비가 안정되자 공격도 살아났다. 24-24의 듀스 상황에서 상대 서브 범실과 하경민(KEPCO)의 속공으로 한 세트를 만회했다.

4세트에서는 15-12로 앞선 상황에서 이강주가 오픈 공격을 터뜨린 뒤 블로킹까지 성공해 승기를 잡았다.

기세가 오른 한국은 5세트 6-8에서 이탈리아 범실 2개를 틈 타 송명근(경기대)과 이강주가 득점을 올려 10-8로 뒤집었다.

14-11에서는 이탈리아의 서브 실패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대표팀은 19일 귀국해 22일부터 광주에서 대회 3주차 경기를 펼친다. /연일뉴스

Hole in one and Dynasty Zon EVENT

기간 | 2012년 6월부터 ~ 종료시 까지
내용 | 지정홀 출신원 및 다이내스티콘 성공시 혜택
대상 | 주중 내정팀에 한함

Hole in one

임페리얼 7번홀	●혜택
마제스티 12번홀	팀 전원 그린피 면제
팰리스 20번홀	(개별소비세, 카트비 별도)

Dynasty Zon

팰리스 27번홀	●혜택
	팀 전원 300cc 생맥주 제공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아리랑하우스의 여름특선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출몰사 건너편)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